

北·러 오늘 정상회담 비핵화·경협 논의

김정은 위원장 전용열차
블라디보스토크역 도착
접경지역 하산역 정차
'김일성의 집' 등 둘러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을 위해 24일 오후 6시(현지시간·한국 시간 5시)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차원의 제재완화 문제와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관계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을 출발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이날 러시아와의 국경에 해당하는 두만강 위 철교를 넘어왔으며 뒤이어 러시아 접경 역인 하산역에 정차했다. 곧이어 김 위원장이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따라 열차에서 내렸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북극개발장관, 올렉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 이고리 모르쿨로프 외무차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대사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조석철 블라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 등이 김 위원장을 맞았다.

이어 전통 의상을 입은 러시아 여성들이 김 위원장에게 환영의 뜻으로 '빵과 소금', 꽃다발을 건넸으며, 김 위원장은 꽃다발을 받고 빵을 맛본 뒤 하산 역사로 들어갔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하산 역에서 북한 방문단을 맞은 나탈리아 카르포바 하산군의회 의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북러 국경을 넘어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카르포바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간단한 영접 행사를 마친 뒤 하산 역 인근의 '김일성의 집' 박물관을 방문했다.

하산 역 관계자도 통신에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김 위원장을 맞아 빵과 소금을 건넸다. 그 뒤 김 위원장이 '김일성의 집'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김일성의 집으로 불리는 '러시아-조선 우호의 집'은 1986년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방문을 앞두고 양측 우호를 기념해 북한과 국경을 맞댄 하산 지역에 세워졌으며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이곳에서 환영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연해주 주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김 위원

장은 환영나온 러시아 측 인사들과의 환담 과정에서 "이번 방리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이는 첫 번째 행보일 뿐이다"라며 추후 또다시 러시아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튿날인 25일 극동연방대학 내에서 첫 북러정상 회담을 할 예정이다. 우리 우사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앞서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대통령(푸틴 대통령)이 방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문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중국 일대일로

(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26~27일) 참석을 위해 곧바로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아 관광지 방문 등 문화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지난 2002년 방러했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27일 아침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25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루를 더 보낼 예정"이라면서 "26일에 그가 루스키 섬에 있는 오케아나리움(해양관)을 포함해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여러 시설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한 뒤 숙소인 러시아 측 인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격퇴' 선언했지만... IS, 스리랑카 테러로 건재 과시

WP "영향력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주말 3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리랑카 테러가 '이슬람국가'(IS)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친 점령지를 잃었지만, 스리랑카 테러를 통해 칼리프국(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 신정일치 국가) 밖에서도 대학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과 국

제동맹군이 IS에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고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명령했지만, IS는 새로운 형태로 재조직됐고 그간 가장 생산적인 '모병장'이었던 소셜 미디어에서 존 재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IS는 이날 선전 매체 아마르크를 통해 'IS의 전사들이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의 구성원과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며 스리랑카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IS는 공격을 수행한 7명의 가명을 공개했으며 공격 대상이 된 호텔과 교회를 지목했다.

이러 공격을 수행한 전투원들이 IS의 수

괴 아무 바크르 알바그다디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모습이라며 8명이 모여 있는 사진을 유포했다.

이들 중 7명은 두건을 둘러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나 얼굴을 드러낸 1명은 스리랑카 정부가 테러의 주체로 지목한 '내셔널 타우히드 자마트'(NTJ)의 우두머리 자흐란 하수미로 추정된다.

스리랑카 지역 조직인 NTJ는 지금까지 눈에 띄는 테러를 저지르지 않은 군소조직이다. 그간 이들의 테러 활동은 망치를 들고 불상의 머리를 부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테러리즘 분석 조직 '시테'의 공

동 설립자 리타 카츠 대표는 "일반적으로 IS는 전 세계의 지역 극단주의 그룹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WP는 전·현직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이 IS의 조직원 모집 활동을 추적하고 있으며, IS가 어떻게 스리랑카를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리랑카 남서 약 40명이 IS에 합류한 것이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폭탄 제조법과 테러방법 등을 익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102년만에 돌아온 일기장

1차대전 참전 호주 군인 분실
다른 참전용사가 후손에 전달

1차대전에 참전한 호주 군인이 전쟁터에서 잃어버렸던 일기장이 102년 만에 원래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24일 호주 공영 ABC 방송이 보도했다. 일기장의 주인은 이미 작고한 오제이 일링위스다.

그는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론세스톤 출신으로 19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차대전에 참전했다.

일기장에는 일링위스가 참전 초기부터 1917년 9월 30일까지 매일 쓴 일기가 담겨 있다.

그는 마지막 일기를 쓴 날로부터 4일 뒤인 1917년 10월 4일 프랑스 북부 숲 지역 전투에서 다리에 총을 맞고 전역

했는데 일기장도 그때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호주 참전군인 찰스 마셜은 일링위스가 분실한 일기장을 주워 호주로 가지고 왔지만 자신의 생전에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에도 마셜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일기장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과거를 찾는 태즈메이니아인'이라는 이름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두 가족이 연결됐고 일기장도 론세스톤에 있는 일링위스의 후손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일링위스의 손녀 앤 메리 오키프 씨는 "세금 네겝 공공 싸넨 소포를 뜯는데 정말 흥분됐다. 일기장을 펼치니 '할아버지 글씨가 맞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국 총선 급부상 野대표 선관위 조사로 위기

태국 군부정권 반대를 외치면서 총선을 통해 급부상한 야당의 대표가 군부정권 고발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선관위의 조사로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24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선관위는 전날 상명을 내고 조사위원회 증거 수집 결과, 타나톤 중동로양 깃 퓨처포워드당 대표가 총선 기간에 V-러 미디어사 주식을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직후 시민단체 운동가는 타나톤 대표가 언론사 주식을 소유한 채 하원의원에 입후보했고, 이는 언론사 사주나 지분을 가진 이는 하원의원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타나톤 대표는 총선 입후보 전인 올해 1월 8일 자신과 아내가 V-러 미디어사 주식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처분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V-러 미디어사의 주식 변동은 총선 사흘 전인 3월21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입후보일인 2월 6일 이후라는 것이다. 유럽을 여행 중인 타나톤 대표는 트위터에 "이번 일은 정치적 사보타주(방해 행위)"라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연합뉴스

중사면대 극초음속기 비행 성공...대학으로 세계최초

중국의 한 대학이 극초음속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 대학 차원에서 이 같은 실험에 성공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

24일 사면일보(慶門日報)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의 사면(慶門)대가 23일 오전 7시 28분께 중국 고비사막에서 자체 제작한 극초음속 무인 비행기인 '자경(嘉慶) 1호'의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사면대 항공우주학원(航空航天學院)이 개발한 자경 1호는 고도 26.2km의 높이까지 비행해 공기저항 시험 등을 포함한 시험기동을 한 뒤 낙하산을 펼치고 고비사막의 지정된 장소에 착륙했다.

사면대 항공우주학원의 연구팀은 자경 1호의 비행거리를 포함해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 인민해방군(PLA)도 일부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경 1호는 사면대 설립자인 고(故) 천자경(陳嘉慶)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자경 1호는 길이 9m 미만, 무게 3t 미만의 로켓을 동력원 삼아 비행한다고 사면대 항공우주학원은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항공우주학원의 주천상 조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기 개발 속도에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